

우리 「건축사」지의 내일을 기대하며

본 협회는 지난 3월 29일 잠실 올림픽공원내 펜싱경기장에서 개최된 전국건축대회에 즈음하여 참석회원을 대상으로 편찬·홍보위원회가 주관하여 “건축사지 발전방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90년대를 향한 한국건축의 정론지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3천여 회원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15명의 회신을 편찬·홍보위원회 (책임정리: 목원대 김정동 교수)에서 분석한 결과를 정리 하였다.

정리된 내용이 협회지 발전에 개진되기를 바라며 본 설문조사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편집자 註)

편찬위원회

「건축사」지는 이미 247호를 발행한바 있다. 建築士의 建築史가 여기 다 들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1960년대 어려운 시대에 태동하여(1966.7 창간호) 여러가지 시행착오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꾸준히 발전해 온 우리나라 건축계의 역사를 담아왔다.

「건축사」지 자체도 여러 단계의 변화를 겪어왔고, 독자의 인식도 변화되어 왔다.

현재의 정치상황이 “保革의 대결”이라 하지만, 건축사 자체도 이런점이 없다고 부인 할 수 없다.

젊은 건축사들의 새로운 욕구를 기존질서의 틀로서는 충족시킬 수가 없다.

그러나 큰 조직, 역사가 오래된 조직일수록 그 욕구에 대한 반응은 더디게 마련이다.

우리 건축사지 편찬위원들의 의식도 그 保革의 와중에서 언제나 옳은 시각으로 대처해 나가려고 노력해 왔다.

지금까지 건축사지를 이끌어 온 편찬위원들도 항상 갈등과 전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최근에는 建築士가 증가되면서 평균연령도 저하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건축조류, 건축의 세계화, 정보의 대량 유통화로 인해 건축계는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건축사들의 해외여행(건축)붐은 새로운 욕구를 창출시키고 있다. 이제 직접 전문하므로써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고 스스로의 입지도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진부한 상태로 건축사지 편집을 해 나간다면 그들의 요구에 반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편찬위원들은 우리 스스로의 위상을 확인 할겸 건축사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키로 하고 몇가지 설문(양케이트)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는 士協 당국과 긴밀한 의견 조정을 거쳐 이를 하나 하나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다.

1)잡지 판형

건축사 첫 창간호는 1966년 7월 발행되었다. 이때의 판형은 [4×6판] 이었다. 1974년 8월호부터 「국배판」으로 발행되어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 (1)현재가 좋다. ————— 80%
 - (2)크기가 줄었으면 좋겠다. ————— 9.5%
 - (3)크기가 늘었으면 좋겠다. ————— 9.9%
- 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상황으로 우리는 당분간 현, 「국배판」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 코져 한다.

2)표지 디자인

건축사 표지는 잡지의 얼굴이다. 따라서 표지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왔다. 전통적이거나 보수적인 의견으로 표지의 잦은 변경을 거부해 왔다. 반대로 진취적인 새 시대는(서두에서 말했듯이)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표지의 도안은 5회에 걸쳐 변화된 것으로 나타 났다.

처음은 1966년 10월호 (新建築士, 격월간제)였다.

1967년 3월호 (新建築界) 그리고 建築士(1968.1)

등등이었다.

최근에는 편찬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 대 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시안 조성렬 위원)

- 건축저널로서의 이미지 개선
- 일반 건축지 경향에의 대응
- 디자인의 시대성 유지
- 단순하고 선명한 이미지 구현
- 현대적 로고의 사용
- 건축사지의 고유한 표지로서의 지속성
- 표지 사진과 로고부분의 구분 등이었다.

실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았다.

(1)현재가 좋다. ————— 48. %

(2)전반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 27.7 %

(3)1년 단위로 변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 23.8 %

이 의견은 현재의 표지 디자인에 대한 견해가 兩分된 것을 볼 수 있다. 편찬위원회는 기존체제의 틀(Flame of Reference)을 유지하고 적절한 변화를 추구토록 할 것이다.

3) 회원 참여폭

잡지의 질의 상향 왕도는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부터 나오는 것이다. 참여는 직접참여(의견요구, 집필...)와 간접참여(독후감, 관심표명)로 나눌수 있다.

편집자로서 항상 느끼는 애로는 참여자의 폭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상식의 번복”이라는 범주인 것이다. 기존에 승복 혹은, 자괴하며 스스로를 방관자로 놔 두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앙케이트는

(1)많다 ————— 8.0 %

(2)많은 편이다. ————— 21.3 %

(3)적다. ————— 29.5 %

(4)적은 편이다. ————— 41.2 %

회원 스스로도 적다고 말하고 있다.

편찬위원회는 회원의 적극적 참여 방법을 개발해 내도록 할 것이다. 회원 스스로의 참여를 기대해 본다.

4) 건축작품소개.

현재 우리 [건축사]지는 여러 건축관계 잡지들과 경쟁하고 있다. 우리는 회원 홍보, 건축사협회가

정하고 있는 정관의 틀에서 가능한 모든 면을 다루려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잡지 등은 판매를 위한 구매욕을 제고시키므로 무가치인 우리잡지와는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회원의 자타추천에 의해 게재되므로 “질(Quality)”은 가능한 한 차선으로 밀리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회원 스스로도

(1)신선해 좋다. ————— 15.9 %

(2)다른 잡지에서 본 것도 있다.(시사성이 없다) 39.2 %

(3)기록의 의미로만 보기때문 시사성은 무관하다. ————— 44.9 %

생각 외로 보수적이다.

작품은 士誌의 얼굴이기 때문에 더욱 신선해 져야한다는 것이 장래에 대한 우리의 기대이다.

5) 作品소개 방법

그러면 작품(畫報)은 어떻게 선정되어야 할 것인가.

(1)작가 자신이 자선하는 것이 좋다. ————— 9.5 %

(2)편찬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좋다. ———— 24.2 %

(3)(1)와 (2)를 함께 병용하는 것이 좋다. ———— 66.3 %

많은 회원들은 편찬위원회에 그 권리를 떠 넘기고 있다.

한국적 사고, 유교적 점잖음이 여기에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작가 자신의 1차적인 의도를 우리는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작품은 현장에도 남지만(대개 익명성으로) 우리 잡지에 실리므로 해서 목록화(File)되기를 기대한다. 편찬위원회의 「건축평론적」 기능(제도적)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편집주간제를(책임 편집위원제)를 고려해 보도록할 것이다.

6) 외국작품 소개

이 질문을 우리가 요구(의도)했던 것과 매우 달랐다. 오히려 외국작가의 작품 소개 요구가 국내작가의 작품소개를 2배도 넘고 있었다.

(1)국내 작가에 한해야 ————— 6.2 %

(2)국의 작가를 게재해야 ————— 17.9 %

(3)(1)과 (2)를 병용해야 ————— 75.9 %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국내작가 위주의 작품을 1차 대상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는 외국 즉 미국, 유럽을 비롯하여, 제3세계권 그리고 아시아의 작가, 작품들을 더 많이 소개코자 한다. 가까운 일본, 중국, 대만, 그리고 동남아시아, 또 우리와 너무나 가까운 북한의 것도(소식으로라도) 다룰 수 있도록

우리는 현재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앙케이트는 회원 스스로도 적다고 말하고 있다. 편찬위원회는 회원의 적극적 참여 방법을 개발해 내도록 할 것이다.

제도적 장치를 갖출 것이다.

7) 작품의 컬러인쇄

제작비와 함수관계를 갖는 질문이기는 하다. 사실 우리도 작품소개는 가능하면 컬러화 하고저 한다. 이것은 장차 유가지(판매지)화 하는 것이다. 또한 읽는 잡지와 보는 잡지의 양면성이 필요하기도 하다. 현재의 컬러화는,
 (1)많은 편이다. _____11.1%
 (2)적은 편이다. _____51.2%
 (3)적당하다. _____37.7%
 로 나타나고 있다.

8) 서울, 지방회원의 참여폭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의 모든 형태가 서울중심제(중앙정부)이기 때문에 문화, 과학, 기술 등은 많은 폭차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과 지방회원 모두의 노력이 시급한 것이다. 지방회원들의 안주성향도 문제를 개선하는데 역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인지해야 할 것이다.
 (1)서울 회원 편중이다. _____27.4%
 (2)지방 회원은 소외 되고 있다. _____28.5%
 (3)(1)과 (2)을 다 포함하고 있다. _____44.1%
 서울회원을 잠재울수는 없지 않은가?

9) 논문의 수준

사실 우리 잡지는 전문지 이긴 하나 특수전문지는 아니다. 특별한 것보다 오히려 회원 중심의 일반적인 양태를 갖고 있다.
 쉬운 예로 대한건축학회(건축)논문집이나, 전문잡지(학술, 평론)보다는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집필자의 의도도 그러하리라 생각된다. 어떤 면에서 건축교양(교육)적 의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1)수준적이다. _____55.5%
 (2)수준이 너무높다. _____15.3%
 (3)수준이 떨어진다. _____29.2%
 수준이 너무 높다거나 너무 떨어지는 것은 이 룰에서 벗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10) 시대별 아티클

칼럼 혹은 연재물의 시대는 보통 현대(modern)이기보다는 Contemporary)에 기준을 두고 있다.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의 모든 형태가 서울중심제(중앙정부)이기 때문에 문화, 과학, 기술 등은 많은 폭차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과 지방회원 모두의 노력이 시급한 것이다. 지방회원들의 안주성향도 문제를 개선하는데 역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인지해야 할 것이다.

한때 “전통건축” 시비도 우리 잡지에서 크게 다룬 적이 있지만, 그 폭은 통사(通史)적이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한다.

현대를 사는 우리 건축가가 우리의 시대사적 건축을 분류해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post-modern이라는 것도 modern을 거치지 않고서는 설익은 과실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근대건축」에 대한 관심도 더욱 제고 되어야 할 것이다. 모두 우리의 것이니까
 (1)전통건축 _____17.4%
 (2)근대건축 _____12.0%
 (3)현대건축 _____70.6%

11) 한문의 사용.

우리는 漢字권에 살고 있다. 東洋人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나간 歷史가 대부분 漢字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글사용에 대해 우리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고유명사나 뜻의 해석에서 우리는 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漢字, 알파벳, 한글의 병용은 가능한 한 우리와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알리는데 적은 기여가 되리라고 믿는다.
 (1)현재가 좋다. _____52.2%
 (2)고유 명사는 한문으로 해야 _____42.1%
 (3)한자가 너무 많다. _____5.7%
 “현재가 좋다”는 여론이 쑤을 상회한다.

12. 13) 편찬 내용 범주

이것은 3)항의 회원 참여폭이란 항목과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의도는 가벼운 「읽을 거리」의 제공이란 측면이다.
 (1)시, 소설, 수필류 _____8.0%
 (2)그림, 드로잉등 _____36.7%
 (3)건축설계 과정에서 느낀점 _____46.7%
 (4)회원 뉴스 _____8.6%
 회원 여러분의 「컬럼」을 확대시키고자 한다.
 “건축설계과정에서 느낀점”(46.7%)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다. 서로 경험을 나눠 갖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양케이트”자의 의도 외에 회원 각자의 바램을 추가로 알아 보았다. 그것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빈도수가 높은 것 부터 배열해 보고자 한다.
 (1)외국의 우수한 건축물 소개 _____129명
 (2)건축행정관청의 행정지침을 알기쉽게 소개 _____117명

- (3)건축물의 설계과정 소개 —————108명(중복)
- (4)신기술 및 특수공법 소개 —————102명
- (5)건축 비평의 활성화 —————97명
- (6)건축관계 법규의 해설 —————91명
- (7)can컴퓨터 관계논문 —————74명
- (8)외국의 저명한 건축가 소개 —————66명
- (9)세계적 건축의 흐름 —————62명
- (10)건축사 보조원의 의견 수렴 —————51명

마지막에 들은 “건축사 보조원의 의견 수렴”은 사용자(건축사)의 의도이기 때문에 더욱 값진 것이다. 건축사보조원에게 앙케이트 했다면 아마 제일 관심있는 항목이 그것이었으리라 생각된다. 건축사와 보조원의 위상정립이 어느때보다 시급한 때이기 때문이다.

14) 최근 3년내의 논문

회원들은 컴퓨터(CAD)에 대한 관심이 최고로 높았다.

사실, 대학(교육기관)에서 컴퓨터에 대해 배우지 못한 건축사는 이 문제가 정말 문제가 된 것이다. 새로운 젊은 세대는 빠른 적응이 가능하나 기성세대는 사실 독학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土協단위의 「CAD특강」이 정기적(주기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다.

당국의 진취적인 접근이 있기를 기대한다.

.(다음은 빈도수 이다)

- (1)컴퓨터(CAD)관계 ————— 122명
- (2)한국의 전통건축 ————— 114명
- (3)한국의 근대건축 ————— 110명
- (4)풍수지리설 ————— 92명
- (5)내진설계기법의 소개 ————— 81명
- (6)구조관계 논문 ————— 63명
- (7)건축비평 ————— 58명
- (8)외국의 건축가 소개 ————— 55명

15) 회원뉴스

회원의 뉴스를 현재의 편집체제에서 양분되어 있다. 더 늘어나길 바라는 폭이 높다.

- (1)현재가 적당하다. ————— 49.6%
- (2)더 늘려야 ————— 29.2%
- (3)더 충실해야 ————— 21.3%

16) 협회뉴스

뉴스는 살아있는 現時性이 있는 것을 뉴스라 할 수

회원들은 컴퓨터(CAD)에 대한 관심이 최고로 높았다. 사실, 대학(교육기관)에서 컴퓨터에 대해 배우지 못한 건축사는 이 문제가 정말 문제가 된 것이다. 새로운 젊은 세대는 빠른 적응이 가능하나 기성세대는 사실 독학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있다.

이에 대해선 회원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걱정을 감해 주었다.

“더 줄여야한다”는 5%는 무엇을 말하는가, 뉴스는 주입식이어서는 않된다는 뜻인가.

충실한 뉴스의 제공원인 협회측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 (1)현재가 적당하다. —————61.0%
- (2)더 늘려야 —————34.0%
- (3)더 줄여야 —————5.0%

17) 각지부의 참여폭

이항은 8)항과 연결된 질문이기도 하다.

현재의 상태로도 서울과 지방은 약7:3의 비례를 보이고 있다.

각 지부의 참여는 스스로의 「소리질름」에서 부터도 나온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울지 않은 지방」은 무관심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우선 5:5로라도 상승시키도록 지방회원들이 노력해 주기 바란다.

이제 FAX도 대중화되고 있지 않은가 서울(본부)의 FAX(02-586-8823)로 넣어주길 기대한다.

- (1)전혀 없다. —————18.7%
- (2)그런대로 괜찮다. —————29.3%
- (3)더 늘려야. —————52. %

18) 배부처의 폭

현재의 협회지는 회원사에게 주로 배부되며, 일부 관계기관에도 무료 배포되고 있다.

따라서 잡지는(無價誌이기 때문) 경제적 이윤에서 Zero Point이다. 일부 광고계재료가 있으나 그것은 본부의 별도 수입이다.

잡지 편집스태프도 사실 취재기능 등에서 어려움에 크게 봉착하고 있다. 취재활동을 위한 차량, 취재비, 출장비가 全無한 실정이다. / 원고료도 타잡지에 비해 높지 않다. (인쇄 工程의 전문화도 필요)

그러나 잡지의 인쇄량을 늘리는 것은 회원 각자에 부담이 되어 진다.

有價誌는 이득이 있으나, 장단점을 저울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배부선에 대한 의견은 회원과 비회원에 대한 고려가 半半이다.

- (1)현재가 좋다. —————49.2%
- (2)비회원에게는 판매하기 바란다. —————32.6%
- (3)기증분을 확대하기 바란다. —————18.2%

19)비회원은 누구에게

앞의 항과 연결이 된다. 어떤 계층에 [건축사]가 읽혀지길 바라는 가.

가장 많은 요구(회원의)는 “건축에 관심 있는 일반인”(50.1%)에게 였다.

그렇다면 회원(무료배부) 일반인(판매)의 방식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 (1)비회원 건축사 _____ 27.1%
- (2)건축사 보조원 _____ 19.7%
- (3)회원의 가족 _____ 3.1%
- (4)건축에 관심있는 일반인 _____ 50.1%

크라이언트로서 가능한 일반인에 대한 건축에 관심(흥미) 유도(계몽)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20)보조원의 참여

설계사무소의 보조원은 사실 중요한 핵이다. 미래의 건축사이기도 하지만 가장 열정적인 진취욕을 보이는 때가 보조원시대이기 때문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들의 참여폭을 매우 제한(?)해 온 느낌이다. 물론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관례(관습)가 그렇게 오래 계속된 것 같다.

- (1)현재 대로가 좋다. _____ 47.2%
- (2)참여폭을 넓혀야 한다. _____ 34.5%
- (3)보조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 하여야 한다.—18.3%

많은 건축사는 현재를 고수(47.2%)하고 있지만 52.8%는 참여폭을(적극) 수용하여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편찬위원회는 보조사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보조사를 미래의 건축사이고 우리의 잠재적 회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양케이트가 지난날의 편집체계를 반추(반성)해 보고 내일을 예견(예시)해주는 바로미터가 사용될 것임을 회원 여러분께 다짐한다.

21)협회지 운영

협회의 운영(경영)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타켓을 회장단, 이사진, 사무국,··에서 관심을 표할 의무가 있다.

“지금 이대료가 좋다”(67.1%)는 보수적인 판단이 많았고 “독립채산제”(32.9%)로 개혁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바람도 많았다.

- (1)기금대료가 좋다. (기관지료) _____ 67.1%
- (2)독립채산제로 전환해야 한다. _____ 32.9%

모든 일의 흥망은 적극적 참여로 부터 온다는 경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2)마지막 바람

회원들은 8개의 요목으로 함축된 의견을 보여 주었다.

- (1)전문지로 지향 _____ 108명
- (2)면수의 증가 _____ 102명
- (3)인쇄의 고급화(컬러화) _____ 93명
- (4)배부의 조기화 _____ 86명
- (5)새로운 자재정보 소개 _____ 86명
- (6)지방 회원작품의 소개 증가 _____ 88명
- (7)산문 등 독자난의 활성화 _____ 73명
- (8)회원 참여의 다양화 _____ 65명

내중중 중복된 것도 있지만, 우리 건축사지의 내일을 기대하는 충고이기도 하다. 우리 편찬위원회는 최선을 다해 의견을 수렴코자 한다.

이번 양케이트가 지난날의 편집체계를 반추(반성)해 보고 내일을 예견(예시)해주는 바로미터로 사용될 것임을 회원 여러분께 다짐한다.

응답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배전의 관심과 질책을 기대한다.